# 명사십리, 코로나시대 운영방안 제시

## 완도군 사전 예약제로 피서객 분산

## "'문화욕장' 새로운 트렌드 이끌어"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며 지난 20일 폐장했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35일간 차량 계측 결과 50여만 명이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49일 동안 58만여 명이 이용하였으나 운영 기간을 비교하면 일일 평균 2,500여 명씩 더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2019년에 비해 10여 일을 짧게 운영하였으며, 막바지에는 3일을 앞당겨 조기 폐장했다.

짧은 운영 기간이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운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효과를 거뒀다.

국내 최초로 사전 예약제 및 3단계 방역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피서객을 분산시키며 감염병을 차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안심 예약존 이용객은 사전에 예약한 2,243명과 현장에서 예약한 2,273명 등 총 4,516명이 이용하였으며, 건강 거리두기 간격으로 비치파라솔 47개를 설치하여 사용료 1,712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파라솔 사용료 2만 원 중 1만 원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완도사랑상품권으로 환불하여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3단계로 실시한 코로나19 방역체계는 1단계로 완도대교와 고금대교에서 완도로 들어오는 모든 방문객들의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2단계는 해수욕장 출입 시 발열체크 후 게이트 소독기를 통과하면 안심밴드를 채워주었다.

3단계는 밀집도가 높은 백사장 구역에 드론을 띄워 이용객을 분산시키고 마스크 쓰기를 독려하는 시스템을 운영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효과는 낮에는 해수욕장, 밤에는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욕장'이라는 트렌드를 선도하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명사십리 해변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백사장에 대형 멀티플렉스를 설치하여 낮에는 군정 홍보, 영상 편지, 신청곡 방송 등 이벤트를 추진하고 밤에는 영화를 상영했다.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시범 운영한 자동차 극장도 향후 완도 관광 콘텐츠의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7월 24일부터 24일간 필라테스, 노르딕워킹, 모래찜질, 다시마 마스크 팩 체험, 명상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에는 총 3,134명이 참여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로 여행이 자제되고 장마가 길어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많은 방문객이 찾아 온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가꿔온 결과이다. 다양하게 운영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전국 최초로 문화욕장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만큼 향후 군민 문화욕구 충족 및 완도관광의 콘텐츠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강진군, 마늘 파종과 시비 당부

## 조기 파종 및 시비 과다 때는 이상 증상 경고

정상왼쪽 벌마늘오늘쪽

강진군은 마늘 파종기가 다가옴에 따라 적기 파종과 적절한 비료 주기를 통해 이상증상을 예방해 주길 당부하고 나섰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난지형 마늘의 파종 적기는 9월 하순~10월 상순이며, 적기에 파종해야 안전하게 월동할 수 있다. 이보다 조기 정식 할 경우에는 벌마늘이나 인편 무름 증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겨울철 이상고온에 따라 토양 내 비료가 과다할 경우 웃자람으로 조직이 약해져 병해에 취약하며 2차생장 발생률도 높아진다.

올해 강진군에서는 지난해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해 남도종 49%, 대서종 20%에서 벌마늘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는 내년 마늘의 생리장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식 시기를 9월 하순 이후로 정하고 우량종구를 확보해 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마늘 정식 전 퇴비와 석회는 정식 1~2주 전 전 포장에 골고루 뿌린 후 깊이갈이를 하고 토양분석을 통해 시비량을 정해 밭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김춘기 소장은 "올해 기후변화로 마늘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으나 지금부터 잘 준비해 피해 예방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진도군, 10월 예정 진도문화예술제 · 아리랑축제 전면 취소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일환

진도군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0 진도문화예술제'와 '2020 진도아리랑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일환이다.

진도문화예술제와 진도아리랑축제는 대한민국 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의 문화와 예술을 집대성한 행사로 27개의 공연과 경연, 전시회, 체험행사로 이루어져 진도군의 문화예술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 행사이다. 지난해에는 10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한달동안 열려 약 3만여명이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국악제와 대한민국 고수대회, 청소년 국악제, 남도 명인·명창 국악의 향연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대회를 개최해 명실상부한 진도군 문화예술 대표 행사로 거듭났다.

청정지역을 유지하던 진도군도 지난 8월 17일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진도군은 행사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 해남, 시인이 사랑한 시인들

## 땅끝순례문학관에서 시문학 콘서트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매월 새로운 시인을 초청해 시문학콘서트가 열린다.

시문학의 고장, 해남의 위상을 알리고,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들과 함께 하는 가을 문학기행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문태준, 손택수, 조용미 시인을 초청해 낭송, 시 노래공연, 문학토크 등 다채로운 문학콘서트를 진행한다.

9월 26일 문태준 시인이 행사의 첫 문을 연다. 문태준 시인은 '가재미', '느림보 마음',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등의 작품을 통해 운문의 정수를 길어낸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이다.

'시를 읽고 쓰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시적인 영감이 오는 순간들, 좋은 시의 조건 등을 이야기 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17일에는 손택수 시인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

손택수 시인은 '호랑이 발자국', '목련 전차', '붉은 빛이 여전합니까' 등의 작품을 통해 다채롭고 탄탄한 시적 향취를 선보이는 대표 중견시인이다.

'개념 너머에 들판이 있다'라는 주제로 자선시 10편을 대상으로 낭송 및 문학 토크를 진행한다.

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청소년안전망 구축 업무 협약 체결'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8일 장흥군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효율적인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장흥군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샛별·장흥·늘푸른·장평·장동·부산·회진·관산·용산·안양지역아동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심리 상담 및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학습, 문화, 의료, 여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손을 맞잡기로 했다.

김은주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소년 안전망 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게 됐다"며 "앞으로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데 많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0여 개 유관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 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 지원,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에는 장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미래설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